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9호 【루계 제26213호】 주체107(2018)년 12월 5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철만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철만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4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23일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씨쥐 우말라또바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을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23일 끼르기즈스딴의 비슈께크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아. 우쑤쁘바에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업적토론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각하회고 나이제리아전국위원회가 11월 23일 아부자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인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루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회고기간에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령도자회고 인도네시아위원회가 11월 26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리스띠안또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를 11월 26일과 27일 도이췰란드단체들이 결성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들로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토르스텐 쇠비츠, 도이췰란드만제연단 위원장 미하엘 코르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각하의 서거 7돐에 즈음한 스리랑카회고위원회가 11월 24일 콜롬보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라디프 위제라트나세카라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 이딸리아위원회가 11월 25일 로마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연구 이딸리아위원회 위원장 미레일라 벨레그리니 페리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령도자회고 아랍위원회가 11월 25일 예질트의 까히라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랍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야흐야 자카리야 쉐이롤라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회고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 스웨리예위원회가 11월 23일 스톡홀름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 단위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오늘 우리 당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의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단위의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자면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금 적대세력들의 횡포무도한 반공화국제재봉쇄책동으로 하여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의연히 많은 애로와 난관이 조성되여있다. 시련이 가증될수록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자력갱생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힘이다.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하고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실현하며 종업원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지름길은 바로 자기 단위에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을 구축하고 적극 발동시키는데 있다.

자체의 과학기술력량만 튼튼히 꾸려놓으면 자강력을 부단히 증대시켜나갈수 있으며 자기 단위앞에 나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강원도에서 그처럼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자체로 하면서도 지방공업발전과 농업생산, 국토관리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은것도, 수도려객운수부문에서 궤도전차를 수입하는데 드는 자금의 10분의 1도 안되는 적은 자금을 가지고 새형의 궤도전차를 만들어낼수 있은것도 자체의 기술진영을 튼튼히 꾸리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총폭발시켰기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여 조성된 난국을 뚫고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할 때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전망성있게 꾸리기 위한 작전을 바로하여야 한다.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인재를 적극 찾아내는것이다. 인재는 해당 단위의 제일밑천, 가장 큰 재부이다. 인재가 없으면 불피교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남의것을 모방할수밖에 없게 된다. 그 어느 단위에나 우리 당의 품속에서 주체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훌륭한 인재들이 있다. 모든 단위에서 땅속에 묻힌 보석을 캐듯이 인재들을 틀어찾아내고 창조의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단위가 일떠서고 기적이 창조되게 된다.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에 맞게 일감을 맡겨주어야 그들이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할수 있다.

전문을 넓혀주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전형단위,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선진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좋은 점은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자, 기능공들이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민감하고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연구과제를 대담하게 맡겨주어야 한다. 창조의 길에서는 일시적인 실패도 있을수 있고 난관도 있을수 있다. 이 경우 일군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변함없이 믿어주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일군들이 소극적으로, 보신주의적으로 사업하며 우유부단하게 되면 그런 단위는 언제 가도 발전할수 없다. 해당 단위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며 결과에 대해 같이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기술자, 기능공들이 제기하는 기발한 착상과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지지하고 생산에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발명을 하였거나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평가사업도 잘해주어 그들이 높은 창조적열의를 가지고 계속 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고난 인재란 없으며 기술자, 기능공들을 보장해주기만을 기다리는것은 맡은 단위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립장이 결여된 표현이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으로 충분한 기초지식을 가지고있으며 정연한 과학기술보급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세워져있어 얼마든지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자체로 키울수 있다.

모든 단위에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며 과학기술력량을 자체의 힘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혁명적인 독서기풍을 세워 누구나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며 습득한 지식을 실지 사업에 활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모두를 자기 전공분야에 정통하고 훌륭한 창조물을 더 많이 내놓는 발명가, 기술혁신자로 키워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적각오와 지식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그들에게 연구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으면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모든 단위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실과 실험실을 잘 꾸려주고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며 그들의 연구성과가 현실에서 온이 날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을 우대하고 생활상애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의 건강문제와 자녀문제로부터 살림집문제, 땔감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말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책임적으로 풀어주어 그들이 맡은 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일군들의 립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군들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페배주의적인 관점을 불사르고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야 한다. 인재를 중시하면 단위가 일떠서고 시대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지만 인재를 홀시하면 단위가 주저앉고 전도가 없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군들부터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실력있는 일군은 천리밖에 있는 인재도 찾아내어 적재적소에 쓰지만 수준이 낮으면 눈앞에 있는 재사도 몰라보는 법이다. 폭넓고 깊은 지식, 만능의 자질을 소유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군들자신이 실력가형의 일군이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지방경제발전에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넣어 각지 당조직에서

각지 당조직에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당의 경제정책관철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경제정책관철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도, 시, 군당위원회들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지방들에서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정신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하고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강원도당위원회와 자강도당위원회, 평안남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 도당위원회에서는 자기 지역,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전망적인 전략과 계획들을 세우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면서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들을 활력있게 전개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시, 군에서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삭주군식료공장, 선천군식료공장, 룡천군식료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다그쳐지고 지방의 원료원천이 적극 탐구동원되여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정책관철전의 기본전구인 시, 군당조직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각지 시, 군당조직에서는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들을 참신하게 짜고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에서 지방공업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하고있다.

창성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을 쓰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중단없이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또한 군당위원회 부서들의 사업을 당의 경제정책관철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지향시키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식료공장, 직물공장, 종이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희령시당위원회 일군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세멘트공장, 철제일용품공장, 기초식품공장, 오지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 달려나가 생산자대중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우시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이 날이 갈수록 활기를 띠고있다.

이곳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기 힘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고귀한 철리를 순간도 잊지 않고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또한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보다 휘황한 래일을 향해 확신성있게 달려나가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다. 그리하여 식료공장, 화학공장, 종이공장, 장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언탄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인재들을 중시하고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원만히 풀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가도록 하고있다.

화대군당위원회에서는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큰걸음을 내짚게 하고있다. 최근 군에서는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세멘트생산기지와 벽돌생산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밖에도 금강군과 초산군, 장진군을 비롯한 각지의 시, 군당조직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인민생활향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밑에 옳은 방법론을 찾아 당적지도를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있는 각지 당조직의 투쟁에 의해 지방경제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튼튼히 마련되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2호회전로대보수를 끝냈다 보산제철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보산제철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제철소에서는 백수십㎥의 콩크리트구조물공사와 120여t의 제관품조립, 수백t의 내화벽돌축조를 비롯한 방대한 량의 2호회전로대보수를 결속하였다. 그리하여 주체철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담보를 마련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금속공업성의 일군들은 보산제철소 2호회전로대보수와 관련하여 능력있는 일군들을 현지에 내보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제철소참모부에서는 금속건설사업소와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로체계와 중요설비체작, 조립을 립체적으로 진행하도록 과학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갔다. 일군들은 대보수전투로 끓어번지는 현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갔다.

대보수전투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콩크리트구조물공사와 베트설치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다. 중량이 수십t이나 되는 베트설치작업은 기술적으로나 량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이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백수십㎥의 콩크리트구조물공사를 결속하고 베트설치를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공무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중요설비, 자재들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100여t이 되는 제관품조립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일념안고 이곳 기술자, 기능공들은 수십m나 되는 회전로동체의 축심을 맞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립방법을 받아들여 대보수전투를 본때있게 다그치였다.

금속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주체철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대보수공사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협동품보장을 맡은 련관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지금 제철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보수가 성과적으로 결속된데 맞게 주체철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전 혁 철

가물막이공사 결속, 언제공사 추진 평강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평강군민발전소건설장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언제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방대한 언제가배수로콩크리트치기를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과감한 돌격전으로 가물막이공사를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줄기를 돌릴수 있게 가물막이공사를 끝냄으로써 겨울철기간에도 언제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여러개의 군민발전소건설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 건설장마다에서 강원도정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군민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는 언제공사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특히 평강군민발전소 언제건설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지휘부에서는 평강군민발전소 언제건설장에서 진행중에 있는 가물막이공사를 빠른 기간에 결속할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가물막이공사를 맡은 평강군민발전소언제건설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과제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였다.

려단에서는 가까운 곳에 혼석제취장을 통이 크게 마련해놓고 불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돌격대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매일 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언제가배수로콩크리트치기와 가물막이공사를 끝낸 기세로 지금 언제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평강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도 건설장에 달려나가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동 규

기관차대에서! 수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기관차

—서평양 찍음

김철만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철만동지는 방광암으로 치료받다가 주체107(2018)년 12월 3일 3시 20분 98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김철만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한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인민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항일혁명투사이며 전설한 로혁명가이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빈농가에서 태여나 식민지망국노의 비참한 처지를 강요당하던 김철만동지는 어린 나이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불굴의 혁명투사로 성장하였으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철만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군로선을 받들고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인민군대를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철만동지는 조선인민군 련대장, 군사부사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최고사령부의 전략전술적방침과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고 부대장병들을 원쑤격멸에로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여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공헌하였다.

김철만동지는 전후시기와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대련합부대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장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철만동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혁명무력강화와 국방공업발전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렸다.

김철만동지는 오랜 기간 당중앙지도기관 성원으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인민보안기관, 군수공업부문의 책임적인 직무를 력임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며 국방공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심혈을 바치였다.

김철만동지는 혁명의 1세로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을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고무추동하였다.

김철만동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투철한 혁명적원칙성과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으로 하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김철만동지의 생애는 혁명의 수령을 신념과 의리로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한 참다운 혁명가의 한생이였다.

김철만동지의 서거는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슬픔으로 된다.

김철만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107(2018)년 12월 3일

김철만동지의 략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철만동지는 주체9(1920)년 11월 2일 량강도 운흥군의 빈농가에서 출생하였다.

김철만동지는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여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동지는 주체25(1936)년 7월부터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주체26(1937)년 7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후 소년중대를 거쳐 오중흠7련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였으며 일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는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였다.

김철만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로선을 받들고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인민군대의 중대장, 대대장, 련대장으로 사업하면서 우리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하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철만동지는 조선인민군 련대장, 군사부사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전술적방침과 명령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부대장병들을 원쑤격멸에로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였다.

김철만동지는 전후시기와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조선인민군 사단장, 군단장, 집단군 참모장의 직책에서 사업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장으로 옹위하고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김철만동지는 1960년대부터 오랜 기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대련합부대, 인민보안기관과 군수공업부문의 책임적인 직무를 력임하면서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국방공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김철만동지는 주체55(1966)년 10월부터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주체59(1970)년 11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였으며 주체65(1976)년 4월부터 주체70(1981)년 10월까지, 주체79(1990)년 5월부터 주체99(2010)년 9월까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주체59(1970)년 11월부터 주체99(2010)년 9월까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였다.

김철만동지는 주체51(1962)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부터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동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특출한 공로로 하여 영예의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공화국2중영웅칭호와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높은 금의 당 및 국가표창을 받았다.

김철만동지는 주체107(2018)년 12월 3일 오랜 병환끝에 서거하였다.

김철만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위업에 바친 그의 투쟁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 고 김철만동지의 장의식을 국장으로 한다.
2. 고 김철만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 원 장 김 정 은

위 원

최 룡 해	리 주 오	김 재 룡
박 봉 주	리 룡 남	박 정 남
양 형 섭	동 정 호	리 히 용
리 명 수	전 광 호	김 성 일
리 수 용	고 인 호	리 상 원
김 평 해	김 영 대	강 양 모
태 종 수	황 순 희	신 영 철
오 수 용	박 경 숙	정 영 국
안 정 수	리 영 숙	박 철 민
김 영 철	리 일 환	주 영 길
최 부 일	리 철 만	김 창 엽
로 두 철	최 룡 명	장 춘 실
최 휘	리 영 태	조 준 모
박 태 덕	량 원 호	서 홍 찬
김 수 길	박 도 춘	손 철 주
리 영 길	홍 승 무	조 경 철
노 광 철	홍 영 칠	리 두 성
정 경 택	유 진	윤 동 현
임 철 웅	강 봉 훈	김 송 철
조 연 준	김 두 일	허 영 춘
리 만 건	문 경 덕	김 형 룡
리 병 철	박 영 호	리 용 주
김 능 오	량 정 훈	오 금 철
김 덕 훈		

고 김철만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에서

고 김철만동지의 령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되여있다.

12월 5일 8시에 고인의 령구를 발인한다.

고결한 헌신의 세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끝까지 실현하는 것은 장군님의 혁명전사인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입니다.》

절절한 그리움이 강산에 넘쳐나는 12월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념원을 꽃피우기 위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길을 돌이켜볼수록 피는듯의 언덕에서 다지신 우리 원수님의 신념의 맹세가 뜨겁게 울려온다.

언제인가 일군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잠시라도 쉬실것을 거듭 간절히 아뢰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나의 건강을 념려하여 잠도 제시간에 자고 식사도 제때에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데 고맙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며칠밤을 새우며 일하여도 일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마음속에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계시면서도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였으며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집무를 보시고 이 나라의 첫새벽을 남먼저 맞으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 일군들에게는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가 되새겨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대안탄공장건설장을 찾아가신것이 언제인지 아는가. 바로 새벽이였다. 수령님의 이런 새벽길은 동해의 포구에도, 서해지구의 남새포전에도 아니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들에로 끝없이 뻗어나갔다. 수령님께서 걸으신 이 새벽길을 누가 이어가야 하겠는가. 바로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

조국과 인민을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걷고걸으신 새벽길, 그 길을 끝까지 이어가실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도 새벽길을 걷고 또 걷지 않으셨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치신 눈물겨운 헌신의 자욱자욱이 어려와 가슴들먹이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나는 한생 어버이장군님의 혁명방식, 생활방식을 따를것이며 이제부터는 장군님을 대신하여 내가 조선의 첫 새벽문을 열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대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제일강국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그이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고동치고있었다.

그날의 숭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걸고걸으신 새벽길은 그 얼마이던가.

오늘도 뜨겁게 안겨온다.

이른새벽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시여 불야경을 이룬 거리의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멋있다고, 낮에 볼 때에도 희한했는데 어둠속에서 보니 그것대로 볼만 하다고, 불장식까지 하면 아름답고 황홀함을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찌 려명거리뿐이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으신 새벽길과 더불어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존엄은 더욱 높아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은 나날이 꽃펴났으니 정녕 그 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사회주의강국의 새날을 불러오는 력사의 새벽길이였다.

뜻깊은 그 나날을 돌이켜보는 12월의 이 아침 우리는 다시금 심장깊이 새긴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이 땅의 모든 승리와 영광이 마련되고 그이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길에 우리 조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이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강 원 남

당, 정권,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고 김철만동지의 령구를 찾아 조의 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철만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4일 당, 정권,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조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혁명무력강화와 국방공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로혁명가를 잃은 슬픔을 안고 조의식장인 서장회관을 찾았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시, 구역급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객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심을 지니고 혁명의 1세로서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바친 고 김철만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고 김철만동지의 령구를 찾아 조의 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철만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4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서장회관에 안치되여있는 고인의 령구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주조 외교단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은 고 김철만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이날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고인의 령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동지
평양화력발전련합 기업소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박봉주동지는 열생산2직장, 소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전력생산자들을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에 앞서 박봉주동지는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의 현대화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면서 건설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며 련관단위들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내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 울려퍼진 감자농사의 자랑찬 승전포성

삼 지 연 군 에 서

우리 장군님의 념원 꽃피우시려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혁명의 고향군,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군에서 감자농사를 잘 지어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백두고원의 풍요한 가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찾아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자저장고안에 무뚝히 쌓여있는 감자산을 보시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신듯 기뻐하시면서 삼지연군에서 올해 메년에 없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감자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올해 7월에 삼지연군에 와서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놓고 총정의 보고를 올리자고 하였는데 군에서 그 과업을 집행했다고 거듭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올해처럼 면력스러운 일기조건에서 많은 감자를 저장고가 터져나가도록 쌓을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기때문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주체102(2013)년 11월이였다. 이날 삼지연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감회는 류다르시였다.

돌이켜보면 삼지연군의 감자농사를 두고 그 누구보다 마음을 쓰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시던 력사의 나날 대홍단군과 함께 삼지연군의 감자농사도 중시하시고 적극 밀어주시였다.

삼지연군안의 농장들에 뜨락또르와 현걸농기계들을 보내주신분도, 농장마다 돼지목장을 건설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하여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삼지연군안의 농장들을 세상에 없는 농장으로 전변시키시기 위하여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념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다음해에 달성해야 할 감자생산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실현방도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주체105(2016)년 11월 또다시 삼지연군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번에 삼지연군을 돌아보니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보다 훌륭히 꾸려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모범단위로 꾸릴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이때뿐이 아니였다. 그 이듬해 12월 또다시 삼지연군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돌아보시며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희한하고 멋있는 공장, 우리 나라 감자가공공업의 본보기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감자가공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께 현대적인 감자가루생산공장을 이미전에 건설하여 보여드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설레였다.

삼지연군에 오실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그 누구보다도 생각이 많으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였다.

올해 7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삼지연군 중흥농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리는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날 감자농사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이날은 온 대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제1작업반의 감자포전에 들어서시여 감자역병과 장마철피해, 낮은 기온과 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과 김매기와 북주기, 거름과 비료주기, 병해충구제 등 감자밭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감자종자저장고마당에서 뜨락또르들과 현걸농기계들을 보아주시면서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는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농기계에 의한 종합적기계화의 기준까지 정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 량강도의 감자농사문제로 그토록 마음쓰신 장군님의 념원을 꼭 풀어드리자고 하시였다.

장군님의 념원!

우리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에 감자농사로 식량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어시려고 얼마나 많은 로고를 바치셨던가. 아직은 감자농사의 토대가 빈약하였던 그때에 대홍단벌에서 구운 감자 몇알로 끼니를 에우시며 북방의 찬바람부는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신 눈물겨운 사연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감자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에 일군들은 눈굽을 적시였다.

삼지연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여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울수 있다는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기에 해마다 수백정보의 밭에 흙짐이를 하였고 정보당 수십t의 유기질비료를 내여 거름지게 걸구었다.

올해에도 그들은 홍계수농장에 포전도로를 건설하고 바람막이숲을 조성하였으며 수십정보의 감자포전들을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전변시키였다.

가을에도 온 군이 떨쳐나섰다.

농장들에서는 품종별특성과 포전별생육상태, 서리가 먼저 내릴수 있는 지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이어 일제히 감자수확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였다.

도당위원회와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 군농업경영위원회일군들이 투쟁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216사단 914지휘부와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도 감자수확전투에 떨쳐나섰다.

감자수확에 감자수송전투가 따라서고 감자를 만적재한 자동차들이 농장포전들에서부터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까지 꼭 늘어섰다.

이렇게 하여 군에서는 올해 감자수확을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삼지연군의 올해 감자농사성과를 놓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도와 군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감자무지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랴.

삼지연군의 감자농사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결실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의 기후풍토에 맞는 과학농법을 연구도입하여 앞으로 감자농사에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토지개량사업을 근기있게 내밀고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며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뜻깊은 올해 감자농사에서 큰 성과를 거둔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백두대지에 활짝 꽃피울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날과 달을 수놓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올해 감자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문제를 놓고 군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을 때였다.

진지한 토론을 벌린 군일군들은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투쟁에서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빈틈없는 작전을 펼치였다.

이렇게 되여 홍계수농장 제5작업반의 포전들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가 정해지고 치렬한 전투가 낮에 밤을 이어 계속되였다. 그처럼 어려운 작업조건에서도 포전도로공사에 필요한 1만㎥의 투사가 화보되고 운반전투가 힘차게 벌어졌다.

기계화포전형성을 위해 1만수천㎡에 달하는 토량처리를 진행해야 했을 때였다.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포전정리공사에 참가한 군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배심은 든든하였다.

우리 힘으로 기어이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오직 이 하나의 의지가 일군들과 근로자들, 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차고넘치였다.

모두가 이악하게 달라붙어 도로와 감자포전둘레에 황철나무와 이깔나무를 비롯한 수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바람막이숲을 조성하였다. 물도랑도 형성하는 등 전반적인 공정을 힘있게 내밀어 공사는 불과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그 어떤 조건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이런 결사관철의 투사들에 의해 기계화포전들이 호붓하게 펼쳐지고 북방의 불리한 기후조건을 이겨내면서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는 탑보가 마련되였다.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불굴의 정신력으로 영광의 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올린 군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드넓게 펼쳐진 기계화포전들과 현대적으로 일떠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감자저장고에 쌓인 감자산을 바라보며 그리고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 세차게 울리며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생산공정에서 내려쌓이는 감자가루를 보며 우리는 확신한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일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고 극복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우리도 한전호에 선 전투원

삼지연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감자농사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속에는 우리도 한전호에 선 전투원이라는 자각안고 성의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해온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뜨거운 지성도 깃들어있다.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으신 뜻을 심장에 새겨안은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한전호에 선 립장에서 감자종자저장고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농장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을 지원하는것은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입니다.》

뜻깊은 올해에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감자농사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산간도시의 본보기, 표준군으로 전변되게 될 삼지연군안의 농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적극 떨쳐나섰다.

경공업성의 일군들은 뜨락또르련결차바퀴를 비롯하여 영농전투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중흥농장 제2작업반에 보내주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제시하신 20돐이 되는 올해에 기어이 감자대풍을 안아오기 위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유원지총국의 일군들은 보서농장 제8작업반에 나가 수십권의 각종 도서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안겨주면서 정치사업을 진행하였고 농기계보관고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넉넉히 보장해주었다.

소백산농장 제2작업반에 나간 교육위원회 일군들도 필요한 뜨락또르부속품을 해결해주고 감자종자저장고건설 등에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단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한층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인민봉사총국의 일군들은 소백산농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수백㎥의 비닐박막을 비롯한 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체신성과 전력공업성의 일군들도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마련한 각종 영농물자와 생활필수품을 통신농장에 넘겨주고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였다.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안고 중흥농장 제1작업반과 제3작업반에 나간 문예총중앙위원회와 국가컨설감독성의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화학공업성과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중앙통계국,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도 삼지연군안의 농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감자농사에 적극 기여하였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지성에 감동된 삼지연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 일념안고 더욱 분발해나서고있다.

중흥농장에 흐뭇한 감자농사자랑이 꽃펴났다. 올해의 불리한 날씨에서도 감자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 제1작업반의 한 분조에서는 정보당 50t이상의 감자를 생산하였다.

이 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킨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충정과 불타는 열정이 안아온 결실이다.

충정의 땀방울이 자양분되여

◎ 중 흥 농 장 에 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감자농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기어이 감자대풍을 안아오자!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이런 명세로 가슴벅이면서 정초부터 잠도리를 든든히 하고 달라붙었다. 그들은 적기에 감자종자를 심고 정성들여 가꾸었다.

그런데 메년에 없는 고온현상으로 가물이 들기 시작하였다. 가물이 계속되는데 맞게 어떤 비배관리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일군들은 다수확의 비결은 과학농법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비배관리작전을 승산있게 하였다. 이들은 이미 세워져있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위력으로 자연의 횡포한 도전을 물리치기로 하였다. 즉 돼지목장의 물거름을 포전에 많이 내여 감자의 영양상태를 개선해주자는것이였다. 그래야 가물견딜성이 강해지고 결국에는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물거름주기전투가 벌어졌다. 물거름은 분무기를 리용하여 주었다. 뜨락또르에 설치한 분무기로는 한번에 넓은 면적에 분무를 할수 있으므로 리용효과가 컸다. 농업근로자들은 더 많은 감자를 생산하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려는 불타는 열의밑에 땀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전인물밭의 의지로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내밀었다.

이들은 포전에서 북주기를 하는것과 함께 물을 잘 대주는데 힘을 넣었다. 땅속물기날기를 막기 위해서였다. 무더위속에서 북을 두텁게 돋구어주고 물배기를 하여 넓은 면적에 잘 아준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밑에 완강한 전투를 벌리였다.

포전마다에 결사관철의 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물주기전투도 벌어졌다. 농장에는 지난 시기 포전 곳곳에 만들어놓은 골포가 있었다. 그러나 가물이 심한 조건에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농업근로자들은 골포를 더 만들면서 물을 확보하였다. 한물이 그대로 물이 되여서라도 포전을 적시려는 일념을 안고 이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물주기를 다그치였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농장포전에 달려나와 가물과의 전투를 벌리였다. 그들은 뜻깊은 올해 영광의 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들도 응당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하며 각종 물전기재를 동원하여 물주기를 전투적으로 하였다.

충정의 땀방울 자양분이 되여 감자농사자랑이 꽃펴난 중흥농장,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다음해 감자농사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방문기

과학기술을 생산활성화의 무기로 틀어쥐고

삼 지 연 감 자 가 루 생 산 공 장 을 찾 아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이자 곧 생산이고 경제발전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찾았다.

공장구내에서 만난 지배인은 우리에게 종업원들의 열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공장조업초기 시운전을 할 당시보다 감자가루생산량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먼저 보이라실에 들어섰다.

불길이 이글거리는 보이라앞에서 지배인은 지난 7월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의 설계와 기술, 우리의 로력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건설한 순환비등층보이라에서 적은 석탄으로 생산공정에 필요한 증기를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실 올해에 혹심한 추위가 시작되면서 보이라의 증기압은 제대로 오르지 못하여 생산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장의 기술자들은 해당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공장실정에 맞는 순환비등층보이라를 새로 제작하여 연소효률을 훨씬 끌어올림으로써 높은 온도의 증기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보이라를 감시하던 열관리공이 압력계를 가리키며 우리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공장의 실정에 맞게 보이라를 새로 제작해놓으니 일하기도 홀겹고 작업장도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우리의것이 제일이고 자기 힘이 제일입니다.》

지배인은 지금 공장에서는 석탄분쇄공정을 꾸리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고 하였다.

공장종업원들의 투쟁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감자가루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와 생산현장을 격폐시킨 위생통과목도에 서니 자동화, 흐름선화되고 무균화, 무진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생산공정이 한눈에 안겨왔다.

《마치 물통완구의 동작을 보는것만 같습니다.》

하얀 위생복을 입고 머리에는 산뜻한 모자를 쓴 한 녀성로동자가 밝게 웃으며 우리에게 하는 말이였다.

우리는 자동화, 흐름선화된 감자가루생산공정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지배인은 여기서 감자알들이 콘베아를 타고 씻기, 탈피공정을 거쳐 절편공정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공장에서는 중간저장탱크도 새로 만들어 생산에 리용하고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콘베아에 실려온 감자들이 껍질벗기기, 씻기, 선별, 랭각, 익히기공정을 거쳐 가루가 되여 포장되는 광경은 불만 하였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지배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건조기에서 잘 마른 감자가루가 나오는것이 종이공장의 초지기에서 흰종이가 생산되여 흘러나오는것처럼 보였다.

감자저장고에서 우리와 만난 한 판리공은 감자저장고의 온습도와 이산화탄소함량을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조절하는 자동조종체계가 없었더라면 이 많은 감자를 판리공들이 어떻게 보관판리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감자껍질처리기, 제진장치를 비롯하여 새로운 설비, 장치들이 련이어 도입되니 로동은 더욱 흥겹고 일터에는 희열이 넘치고있었다.

돌아볼수록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정상화의 동음 높이 울리며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가는 보람찬 일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좋은 감자가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일으키리라는것을 확신하며 공장을 떠났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그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리

지난 7월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과 군안의 농장들을 종합적기계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실현된 우리 나라의 표준으로, 농장원들의 리상이 현실화된 종합적기계화농장으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놓고보니 해마다 우리 군에 찾아오시여 감자농사를 위해 심혈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어려와 눈굽이 절로 젖어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번화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겠다.

감자농사에서 통장혼을 부르자면 농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농장포전들을 사회주의국가의 땅답게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업근로자들이 농기계를 자기 살붙이처럼 귀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내밀겠다.

기계화초병들속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농업근로자들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고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게 하는데 힘을 넣어 과학농사의 담당자,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 일군들부터 세계적인 농기계발전추세에 맞게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철저히 집행해나가겠다.

우리 일군들은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감자농사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삼지연군농업경영위원회
위원장 원 태 범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인 결사전으로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다그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으로 받들고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이 날에날마다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며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지난 9월 5만산발과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린 이들은 현재까지 5만㎥이상의 언제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고 2 700여m에 달하는 물길굴을 뚫었으며 1 50여m의 창포언제가물막이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건설현장에서 우리는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고있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투쟁소식을 전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 금 찬

5배이상의 공사실적을 기록하며 질풍같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이후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혁신의 불바람이 휘몰아치고있다.

공사속도 종전보다 5배이상 장성, 5만산발과 성과적으로 진행, 5만㎥이상의 언제콩크리트치기 진행, 물길굴 2 700여m 전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모두의 심장마다에서는 하나의 신념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

북방의 날씨는 맵짜고 산관마다, 골짜기마다 불어치는 바람도 사납지만 자연을 길들여 만년언제를 쌓아가는 발전소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은 충정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발전소건설을 일당기키 위하여 련이어 위해주시는 혁명적인 조치는 건설자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세멘트를 비롯한 중요건설자재들이 련이어 도착하고 대형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운수기재들도 증강되는 가운데 온 공사장에 애국충정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현장련합지휘부에서는 당이 제시한 발전소완공날자를 무조건 보장하기 위하여 일별, 주별, 월별전투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지도소조와 현장련합지휘부 일군들은 한개 대상씩 맡고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전투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당지도소조성원들은 멀리 떨어진 공장, 기업소들에 달려가 자재와 부속품을 해결해오고 화선의 지휘관이 되여 돌격로를 열어나가고있다.

언제와 물길굴공사장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창조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언제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팔향언제건설을 맡은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로력과 건설기재들을 더욱 보강하여 언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책임일군들은 현장을 하나씩 맡고 내려가 제일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9월에 들어와 첫날부터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2일부터는 종전보다 200㎥나 더 많은 500㎥를, 10일부터는 그보다 100㎥나 더 많은 600㎥의 혼합물타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하루 혼합물타입량을 700㎥로 끌어올리는 혁혁한 성과를 지두었다. 11월에 이들은 련속공격전의 불길높이 또다시 새 기록을 창조하면서 총 언제콩크리트치기량의 80%계선을 돌파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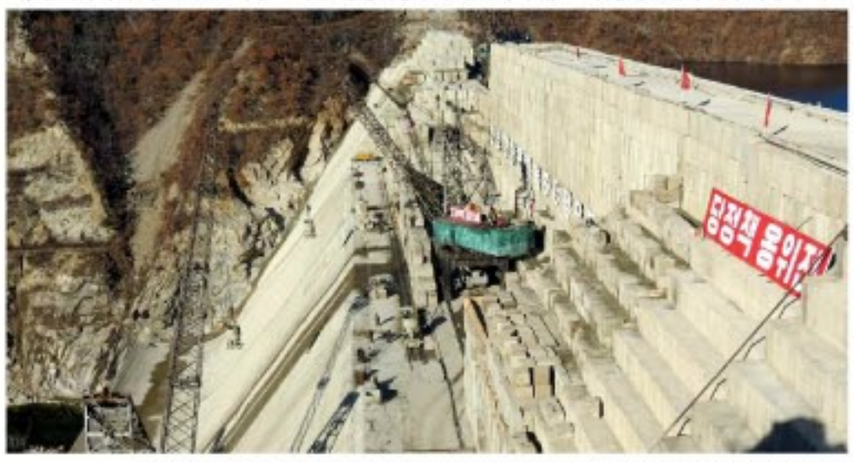
창포언제건설을 맡은 함경북도청년돌격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전투장마다에서 청춘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차디찬 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1차, 2차, 3차의 가물막이전투과제를 한달동안에 와닥닥 해제낀 이들은 언제콩크리트치기를 시작하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언제건설장마다에 타오른 위훈창조의 불길은 물길굴공사장에도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취수갱, 1갱, 2갱, 3갱, 4갱 등 여러 갱으로 나누어 립체적으로 진행되는 물길굴공사는 대단히 어렵고 작업량도 방대하다. 그러나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투원들은 굴진을 앞장에서 내밀고 함경북도 시, 군, 구역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비력처리를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물길굴은 2 700여m나 전진하였다.

세멘트를 비롯한 중요자재들을 제때에 수송하기 위한 전투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지금 이 시각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리며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언제를 떠받드는 억척의 신념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팔향언제건설을 당이 정해준 기간안에 무조건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공사조건은 대단히 어렵다. 북방의 추운 날씨로 밤이면 물이 얼어들어 난관이 막아서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도 부족하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헤치며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언제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지난 10월말 어느날, 이들앞에는 뜻하지 않은 정황이 생겼다.

당장 혼합물타입작업을 해야 하겠는데 대형화물자동차들을 골재운반에 동원시킬수 없는 사정이 제기되였던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언제건설장에 골재를 보장하는 콘베아까지 멎어서는 긴급한 정황이 제기되였다.

이렇게 되자 공사일정계획을 변경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도 제기되였다.

그러한 때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의 호소는 절절했다.

난관이 가로놓였다고 하여 우리가 수행해야 할 전투과제를 놓고 총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혼합물타입작업에 필요한 골재를 우리 힘으로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그의 불같은 호소에 호응하여 련합기업소일군들이 제일선참으로 질풍을 메고나섰다. 함경북도의 곳곳에서 달려온 녀맹원들도 여기에 합세해나섰다. 골재전투장은 그야말로 치렬한 격전장으로 화하였다.

골재장으로부터 건설장까지 10여리, 한사람이 6시간동안에 평균 4-5번씩 오간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 함경북도 녀맹원들은 골재를 등에 지고 뛰고 또 뛰며 건설장으로 달려갔다. 이들의 불같은 투쟁에 고무된 언제건설장의 로동자들도 혼합물타입작업을 힘있게 내밀어 그날 전투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야말았다.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며 결사전을 벌려가는 위훈의 창조자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얼마전 언제건설장에서 혼합물타입작업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때였다.

우안언제에 혼합물을 타입하자면 기중기로 올린 혼합물바가지를 전차에 실어 100여m를 운반하고 거기서 기중기로 혼합물바가지를 다시 들어옮겨 타입을 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작업도중 전차가 멎어서는 긴급한 정황이 생겼다. 전차가 가동하지 못하면 언제건설이 중단되는것은 물론 숱한 혼합물이 굳어져 랑비될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전차에 어깨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었다. 언제우에서 현장지휘를 하던 책임일군들이였다. 중량이 10t이상 되고 바퀴에 이상이 생긴 전차는 한치한치 힘들게 전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건설을 단 한시도 멈출수 없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한두번도 아닌 온 하루 전차를 밀고 오가며 혼합물타입을 보장하였다.

팔향언제건설에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에 다 적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굳게 믿는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언제건설을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의지를 안고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이런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있는 한 완공의 그날은 멀지 않았다는것을.

이들앞에 나선 투쟁과업은 아직 방대하다. 10여만㎥의 콩크리트치기를 해야 하며 그러자면 매일 수천의 물동량을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승리의 신심드높이 매일 전투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련속공격,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기적창조의 숨결 높뛰는 청춘의 활무대

함경북도청년돌격대에서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은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여 한층 단단히 하고있다.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 그것도 기계수단이 부족한 불리한 속에서 수천㎥의 굴착과 수천㎥의 성토, 150여m의 가물막이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한 함경북도청년돌격대 지휘관들과 대원들, 그들의 자랑스러운 투쟁기풍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청년전위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찾아보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9월말, 아직은 겨울이 아니였다. 그러나 산골에서 흘러내리는 물온도는 온몸을 얼구어버릴듯싶었다. 그 차디찬 물속에서 한시간도 하루도 아닌 한달이라는 기간 힘겨운 전투를 벌려 끝내 자연을 길들인 결사대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함경북도청년돌격대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이후 결사대를 뭇고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 자원진출한 청년돌격대원들앞에는 짧은 기간에 창포언제가물막이를 진행할데 대한 과업이 나섰다.

기초굴착과 가물막이용통나무생산, 주변성토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가물막이전투까지 내민다는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였다. 더우기 어랑천과 대포천이 합수되여 물살이 세고 물온도도 낮았다. 그런 속에서 일한다는것자체가 다른 때보다 몇배의 각오와 의지를 요구하였다. 하기에 청년돌격대가 이 과제를 맡았을 때 해낼수 있겠는가고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맥박친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결사관철해야 한다는 억척의 신념과 의지였다.

요란한 선동이나 연설은 없었지만 첫 메목을 찍우고 물속에 뛰어든 지휘관들의 뒤를 돌격대원모두가 따라나섰다.

거센 물살은 사람도 메목도 사정없이 삼키려들었다. 자기 몸에 감았던 바줄을 풀어 메목에 련결하는 돌격대원도 있었고 때내려가는 동지를 위해 서슴없이 물속에 뛰여든 돌격대원도 있었다. 하루도 아니고 한달이라는 기간 이들은 이렇게 한치한치 가물막이를 쌓아나갔다.

드디여 사품치며 흐르던 물결이 미리를 숙이게 되였을 때 돌격대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얼싸안으며 이렇게 웨쳤다.

《우리의 힘으로 물줄기를 막았다!》

이 소박한 말속에는 하루빨리 언제건설을 완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충정의 보고를 올리려는 청년들의 불같은 열의가 비껴있었다.

그 뜨겁고 절절한 마음의 분출인양 전투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는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높은 둔덕우에서 마이크를 쥐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름아닌 려단장 김충일동무였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는 돌격대원들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울려주었다. 노래소리와 함께 함마소리가 어기차게 울려퍼지는 온 공사장은 충정의 열정으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며 결사전을 벌려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언제건설을 도맡아하는 속에서도 3갱을 비롯한 여러 갱의 굴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막장으로 달려가 버력처리를 도와준 청년들은 또 그 얼마이던가.

어떻게 되여 그런 위훈을 세울수 있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려단정치부장 김영수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야 이 땅의 청춘이 아닙니까.》

그의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당을 받드는 우리 청년들의 수정같은 량심을 이들은 실천으로 확증하였다.

그렇다.

당의 부름이라면 불불을 가리지 않고 결사관철해나가는 이런 청춘들의 믿음직한 대오가 있기에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는것이다.

더 많은 물동을 싣고 전속으로!

대형화물자동차 2235호를 타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명간역에서 팔향언제까지는 100여리, 짧지 않은 운행거리였다.

그러나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대형화물자동차 2235호 운전사 김진환동무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상차장에 차를 들이댄 그는 세멘트상차작업을 하고있는 기중기운전공에게 손시늉을 하며 싱긋 미소를 보냈다.

우리가 무슨 뜻인가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하였다.

《만짐을 실으라는 뜻입니다. 한㎥라도 더 실어야 건설을 앞당길수 있으니까요.》

이윽하여 적재가 끝났다는것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울렸다.

부르릉—

말동소리에 이어 2235호가 세멘트상차장을 벗어나자마자 손일명동무가 모는 대형화물자동차가 기중기옆에 바싹 다가든다. 도로에 들어선 2235호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내달렸다. 순식간에 차는 큰길을 지나 언덕길에 접어들었다.

《화물 12km》라는 리정표가 보였다.

운전사는 여기가 제일 어려운 운행구간이라고 우리에게 귀띔해주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차가 경사급한 올리막에 들어섰다. 그러자 온몸이 뒤로 쏠렸다. 운전사가 가속담판을 밟으니 자동차는 윙윙, 윙윙 더욱 용을 쓰며 경사길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걸에 앉은 우리의 마음은 저으기 긴장해졌다. 그도그럴것이 도로 오른쪽에 수십m의 낭떠러지가 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제동과 변속을 능숙하게 해가며 화물자동차를 기운차게 몰아가는 운전사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어려있었다.

한급이 돌아서니 경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한대의 대형화물자동차가 마주오고있었다. 알고보니 경명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한다는 리경철동무의 차였다.

도로좌우켠에 게시된 《전시수송전사들처럼》, 《300%는 성차지 않다》, 《건설장까지 단숨에》 등의 글발들이 언뜻언뜻 차창밖으로 지나갔다.

어느새 대형화물자동차는 언제건설장에 다달았다. 줄지어 서있는 대형화물자동차들의 뒤를 이어 혼합장에 정확히 차를 들이댄 운전사는 운전칸에서 훌쩍 뛰여내렸다. 그리고는 세멘트를 부리는 동안 차바퀴상태를 깐깐히 살펴보았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던 그는 무심중 혼자소리로 말하였다.

《교대운전사가 나오기 전까지 한량 더 뛰여야겠는데…》

교대시간이 다된 모양이였다. 그는 오늘 자기가 맡은 수송과제를 돌파하였다. 기업소적으로 앞선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는 마음의 랑개를 늦추지 않고있었다.

운전사는 경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또다시 명간역으로의 운행길을 재촉하였다.

한량만 더!

이런 기세로 그는 다시 상차장으로 대형화물자동차를 몰아갔다. 우리는 멀어져가는 대형화물자동차 2235호에 손을 들어 인사를 보냈다.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은 전투의 분분초초를 이렇게 이어가고있다.

현지보도 위훈의 별무리

팔향언제건설장 타입현장에서

여기는 팔향언제건설장이다. 깊은 밤이다. 하지만 건설장은 잠들줄 모른다. 언제콩크리트치기전투로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의 근로자들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대상건설에서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열렬한 애국의 인생관을 지니고 오늘의 벅찬 대건설전투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야 합니다.》

콘베아를 타고 줄줄이 쏟아지는 모래와 각종 크기의 자갈들, 둔중한 동음을 울리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혼합기, 동체를 우뚝 세우고 긴 팔을 연방 휘두르는 기중기들…

산협의 묘한 위치에 자리잡은 언제건설장은 지금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치렬한 전투로 하여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마치 눈이라도 달린듯 바가지에 담긴 혼합물이 휘틀에 정확히 쏟아져내린다. 타입공들이 때를 기다린듯 숙련된 솜씨로 진동기를 혼합물속에 푹푹 박는다. 이마에 송글송글 내돋는 땀방울을 훔칠새도 없이 진동기를 들어쥐고 혼합물다짐을 경쟁적으로 벌리는 건설자들…

《빨리, 빨리!》

혼합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운듯 한 타입공이 기중기운전공에게 재촉한다.

당에서 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자신들의 발걸음이 더딘것만 같아 서로 재촉하며 뛰고 또 뛰는 그들의 모습은 바라볼수록 미덥다.

장쾌하게 솟아오르는 언제골조우에서 이밤도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하기 위해 전투지휘에 여념이 없는 일군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보인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다.

온 건설장이 하나의 지휘봉에 맞춘듯 치차처럼 맞물려돌아간다.

골재와 세멘트를 싣고 끊임없이 건설장에 들어서는 대형화물자동차들, 계단식으로 배치된 콘베아들의 우렁찬 동음…

시간이 갈수록 건설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교대당 혼합물타입실적 또다시 돌파!》

《하루계획 150%로 넘쳐 수행!》

혁신의 새 소식을 알리는 속보들이 련이어 나붙는다.

이 한밤을 지새우며 조국의 재부를 창조해가는 위훈의 별무리,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닌 이런 미더운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에 떠받들려 팔향언제는 한치 또 한치 키돋움하며 솟아오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디마스끄에 도착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수리아아랍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3일 디마스끄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성 1부상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하노이를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월남외무성 관계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도착

리상원 세이방조선초중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련 새 세대 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박옥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새 세대 일군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벨라루씨외무성대표단 귀국

칙또르 리바크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벨라루씨외무성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대표단은 체류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또한 외무성 부상 임천일동지를 의례방문하고 해당 일군들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담화들에서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가진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키며 국제무대에서의 호상협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였다.

한편 대표단은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주체사상탑 등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의주시의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뜨거운 은정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신의주시 수문동 6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병녀할머니가 백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해방전 평안북도 운전군에서 빈농의 딸로 태어난 할머니는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비로소 참된 삶을 누려온 그는 당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 헌신해왔다.

아직도 간단한 집안일 등을 하면서 일손을 놓지 않고있는 할머니는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며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여생을 보내고있다.

얼마전 새 살림집을 받은 할머니는 자손들에게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우리 인민이 이 세상 만복을 누리고있다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늘 당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번째 생일을 맞는 김병녀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였다.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 할머니는 나라일로 바쁘신 속에서도 정성한 늙은이의 생일상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였다.

할머니의 가족, 친척들은 당의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꾸바혁명무력절 62돐에 즈음하여 꾸바대사관 무관 연회 마련

꾸바혁명무력절 62돐에 즈음하여 마르셀리노 로드리게스 곤살레스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이 4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인민무력상 룩군대장 노광철동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해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쏘뜰롱고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년간 굴진계획을 완수한 기세드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2.8직동청년탄광 감성갱 김봉철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이 지난 8월말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앞당겨 끝낸 기세드높이 혁신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계획수행기간 이곳 굴진소대원들은 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선공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앞선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굴진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이들은 굴진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여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는 한편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기풍을 발휘하면서 련일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하였다.

뜻하지 않은 일로 전진막장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굴진소대원들은 결사전을 벌려 불과 몇시간만에 막장을 복구하고 착암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갔다.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펏펏이 들어선 소대원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증산돌격운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갔다.

이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완강한 공격전으로 련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누구나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혁신의 한길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속에 지금 소대에서는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청 일

제힘으로 고향땅을 빛내여가는 긍지와 보람

정 평 군 을 찾 아 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정평군을 찾았다.

우리는 먼저 읍에서 60리떨어진 금진강6호청년발전소로 향하였다. 우리와 동행한 군의 일군은 금진강에 발전소들이 일떠선 결과 세가지 문제가 풀렸다고 말하는것이였다. 큰물피해를 모르게 되고 관개용수가 해결되였으며 전기력을 보게 되니 군안의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셔질줄 몰랐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일제는 이 고장의 풍부한 자원을 략탈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혹심한 산림파괴로 하여 해방전 어느해인가는 금진강이 큰비로 불어나 마을들이 통채로 떠내려가는 참사까지 빚어지게 되였다. 그러한 금진강이 오늘은 보배강, 전기강으로 전변되였으니 이곳 인민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덧 금진강6호청년발전소를 가까이하였다. 산봉우리와도 같이 웅장한 언제와 그 한켠에 흑색외장제를 칠한 발전소건물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우리는 발전소에서 책임기사 김영철동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앞으로 다가갔다. 표식비의 글발을 한자한자 새겨보느라니 진눈까비내리는 궂은날 건설중에 있는 언제우에 오르시여 자신께서는 정평군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뜨겁게 어려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분에 넘친 평가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그후 드넓 공격전을 벌려 금진강6호청년발전소를 완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발전기실에 들어서니 여러대의 발전기가 기운차게 돌아가고있었다.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발전기들의 정상가동을 보여주는 계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력갱생, 자급자족하는 길만이 승리와 번영의 길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영광의 일터에는 자랑도 많았다. 발전소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군안의 공장들과 주민지구에 보내주었으며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발전기의 효률을 부단히 높이고있었다. 발전소에는 생산성과와 관련한 자랑만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산중의 바다처럼 펼쳐진 저수지에서는 해마다 넘어준 새끼물고기들이 자라 그야말로 팔뚝같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있으며 경치좋은 저수지주변에서 명절날과 휴식일이면 사람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였다.

금진강6호청년발전소를 돌아본 우리는 이어 군안의 인민들이 보배공장이라고 부른다는 정평군식료공장을 찾았다. 우리가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10m가 넘는 그림이 우리의 눈앞에 안겨왔다. 산과일을 따는 사람들의 모습과 자기 고장의 원료로 생산한 여러가지 식료품이 쏟아져나오는것을 보며 기뻐하는 녀성로동자의 모습 그리고 꽃우유차를 반기며 달리는 어린이들을 형상한 특색있는 벽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곳 종업원들의 공장에 대한 애착심을 엿볼수 있었다. 공장지배인 김춘실동무는 우리에게 군안의 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전기로 식료품생산을 팡팡 내밀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공장에서는 10여종에 수십가지에 달하는 식료품을 생산하고있다는것이였다. 우리가 찾은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꽃우유와 꽃사탕, 과자가 생산되고있었다. 종업원들의 말에 의하면 날씨가 찬 요즘은 어린이들이 따끈한 꽃우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한다.

지난 시기 이 공장에서는 원료문제로 애로를 겪은적도 있었다. 그때 지배인동무는 종업원들에게 지방에서 인민들이 제힘으로 건설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 쓰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에서는 우리 공장에 우선적으로 전기를 보장해주고있다, 그런데 우리가 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생산을 멈출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이 난관을 뚫고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그후 공장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조성한 원료기지를 알심있게 가꾸어나갔다. 이렇게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놓은 결과 공장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해나갈수 있었다.

공장에 울려퍼지는 생산의 동음은 비록 높지 않아도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동음이여서 우리에게는 더없이 정답게 들려왔다.

우리는 정평군의 약동하는 숨결을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건설한 체육관을 돌아보면서도 느낄수 있었다.

체육관에는 배구, 롱구경기를 할수 있는 경기장과 탁구장, 육체훈련장이 갖추어져있었다. 우리를 놀라게 한것은 이 체육관을 이미 있던 낡은 건물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일떠세운 사실이였다.

우리에게 군인민위원회의 일군은 체육관건설과정은 군안의 인민들의 정신력이 폭발되고 자력갱생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나날이였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자기 고장에도 멋있는 체육관이 건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안의 인민들모두가 떨쳐나섰다. 가두인민반 녀성들까지도 건설장에 달려나와 구슬땀을 바치였다. 하여 오늘과 같은 자랑찬 현실을 펼쳐놓을수 있은것이다.

훌륭히 꾸려진 체육관을 나서니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읍거리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있었다. 전기력을 이렇게 보고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면서 음사무소의 일군은 우리를 249인민반의 어느 한 가정으로 안내하였다. 우리와 만난 집주인들이 들려주는 자랑거리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자기 손으로 일떠세운 발전소들의 전기로 생산도 하고 집집의 조명도 보장하니 고향땅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간다는 세대주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념안고 발전소건설을 줄기차게 벌려온 정평군인민들이 누려가는 행복넘친 생활의 훈향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앞으로도 이곳 일군들과 인민들이 영광의 땅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차 수

실천적의의가 큰 연구사업에 박차를

국가과학원 용접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용접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연구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연구사들이 현장에 달려나가 실천적의의가 큰 연구종자들을 찾아쥐고 그 실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밀려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용접재료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용접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현대적인 용접방법들을 발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직류와 교류에서 다같이 사용할수 있는 용접봉을 개발하고 어느 한 공장에 새로운 용접봉생산공정을 세워주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큰 경제적실리를 얻게 하였다.

발전설비생산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한 발전소의 설비분공장에 달려나간 과학자들은 새롭게 개발한 여러가지 용접봉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확립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과학자들은 여러 수력발전소의 발전기수차날개와 본체의 이종강용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전력생산정상화에 적극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폭발용접에 의한 쌍금속판생산기술을 더욱 완성시켜 제작한 여러조의 3중금속판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송전설비에 도입함으로써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 송전손실을 훨씬 줄일수 있게 하였다.

이런 훌륭한 연구성과는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는데 이바지할 불같은 각오를 안고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온 용접재료연구집단 과학자들의 뜨거운 애국충정이 낳은 결정체이다.

용접재료연구집단뿐만이 아니라 연구소의 여러 연구집단도 실리있고 현실에서 은을 내는 용접과학기술을 적극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자신들앞에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용접설비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철근망조립을 보다 편리하게 할수 있는 이동식철근망저항용접기제작에 달라붙었다. 이들은 건설부문에서 리용전망이 큰 철근망용접기를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켰으며 서로의 지혜를 합쳤다. 하여 장치가 간단하면서도 작업효률을 높일수 있는 저항용접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어느 한 건설현장에 도입하였다. 이 저항용접기를 리용하면 건설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면서도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다고 한다.

용접검사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이 새롭게 연구제작한 결함탐지기들도 대상물들에 대한 검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수도의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나간 용착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용착재료를 개발하고 용착공정을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지하전동차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많은 용착기술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고암-답촌철길공사장에 달려나간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공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교각, 아치트라스의 설치에서 나서는 용접부기밀보장, 용접터짐 등 많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해상철길다리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지금 이곳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실천적의의가 큰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 현

새 제품개발사업에 일군들이 앞장설 때

토성제약공장에서

최근 토성제약공장에서 생산한 의약품과 건강식품이 사람들속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이 공장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체질에 맞는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비롯하여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해마다 수십가지나 생산하고있다.

질좋은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그 이름이 다른 나라에까지도 널리 알려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의 하나인 의약품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물질적기초입니다.》

오늘 어느 제약공장에서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의약품생산설비를 부단히 갱신하기 위하여 애쓰고있으며 새 제품개발사업을 공장의 전도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매우 중시하고있다.

토성제약공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학기술보급실에 수만건에 달하는 최신과학기술자료를 구축해놓고있으며 누구나 새 제품개발사업과 기술혁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올해초 지배인의 방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보다 높이기 위한 협의회가 진행될 때였다. 목표는 명백했으나 신통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모두들 머리를 기웃거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별다른 수는 찾을수 없다고 생각하며 협의회참가자들이 맥을 놓고있을 때 그때까지 자그마한 수첩을 곰곰히 들여다보며 아무 말없던 김영권지배인이 문득 추출설비를 개조하면서 거기에 랭각장치를 도입하면 어떨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순간 협의회참가자들이 무릎을 쳤다. 약초를 알맞는 온도에서 건조하고 가공하면서도 얼마 안되는 성분들의 손실까지도 막을수 있는 묘안이였던것이다.

그들의 눈앞에는 매일이다싶이 현장에서 추출설비들을 들여다보면서 수첩에 그 무엇인가를 적어넣거나 그리면서 짬이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찾군하던 지배인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사실 몇달전에도 진공건조기를 비롯한 여러 설비가 갱신되였는데 그 착상자가 바로 지배인이였다.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진취적인 일본새는 종업원들을 더욱 분발시키였다. 어떻게 하면 생산과정에 시간과 로력을 절약할수 있겠는가를 두고 애쓰던 끝에 한 약제사는 알약기계로 고려약을 만들 착상을 내놓았다. 다른 종업원들도 자기가 다루는 설비의 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기 위한 기술혁신활동을 적극 벌려 의약품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공장에서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는 새 제품개발사업에서도 역시 일군들이 앞장에 서있다.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는 황금송진치약을 만들던 때를 놓고보자.

이발 및 입안질병을 예방치료하며 이발표백에도 좋은 이 치약은 황금이라는 고려약재를 가지고 만든것이다. 우리 나라에 흔한 고려약재로 치약을 만들기로 결심한 공장의 일군은 자신이 솔선 연구사업에 뛰여들었다. 그의 책상에는 치약과 관련한 도서들, 고려약재들의 약효능에 대한 자료들이 키를 넘게 쌓여있었다. 일군은 매일 밤 도서들과 자료들을 탐독하고 기술자들과 함께 실험도 하면서 마침내 천연고려약재를 가지고 가루형태의 황금송진치약을 개발해내고야말았다. 종업원들이 공장의 첫째가는 개발자는 일군들이라고 평가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 공장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좋은 점은 의약품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서 대중의 평가를 중시하는것이다. 이곳 일군들은 힘들게 개발한 새 제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중의 의견을 받고 그것을 참작하였다. 생산에 앞서 사용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의약품의 질을 더욱 높일 방도를 찾는 과정에 황금송진치약도 높은 질적수준에서 만들어냈던것이다.

인삼간염교갑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이 난 효능높은 의약품들은 물론이고 최근에 공장에서 련이어 만들어낸 새 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것은 이렇게 일군들이 높은 실력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을뿐이니라 하나하나의 제품들을 인민들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투철한 의식이 투철한데 있다.

의약품생산단위들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추어 전진하는가 아니면 제자리걸음을 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이 얼마나 높은 실력을 지니고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생산자대중을 이끌고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해당 단위의 성과여부가 결정되는것이다.

토성제약공장의 일군들처럼 대중이 인정하는 높은 실력으로 자기 단위, 자기 집단을 이끌고 나갈 때 어느 단위나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시대의 전렬에 당당히 설수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옥 별

인재양성에서 중시한 문제

안주공업대학에서

안주공업대학에서 실천형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대학에서는 공장대학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속에서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실천실기능력을 높여주는것을 실천형인재양성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어느날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료해하던 대학일군은 심한 가책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학생들속에서 실천실기과목들의 점수가 낮았던것이다.

공장대학이라면 마땅히 실천형의 인재를 키워내는데로 교육내용과 방법이 지향되여야 하였다. 하지만 시험결과는 학생들에게 실천실기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 잘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있었다. 대학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강하게 내미는 속에서도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여왔다고 하지만 공장대학의 사명에 맞게 쓸모있는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서는 확실히 공백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로부터 대학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실천실기능력을 높여주는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우선 힘을 넣은것이 실험실습교육을 담당한 교원들의 자질을 짧은 기간에 향상시키는것이였다. 대학에서는 교원들이 실험실습과정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게 강의준비를 잘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실험실습교수안을 현실과 밀접히 결부시켜 작성하도록 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를 잘하는데서 교원들이 자주 현장에 나가도록 한것이 좋았다. 교원들이 실험실습과정안을 현장에 나가서 실천적인 내용을 풍부히 담아 작성하도록 하니 학생들이 현실에서 실지 쓸모가 있는 지식을 다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였던것이다.

실례로 전기공학강좌에서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전기직장들에 나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어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해보고 그것을 실험실습과정안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실험실습교육이 현실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니 학생들의 학습열의도 오르고 실천실기능력도 원만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대학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교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실험실습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도 조직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동력과 전기시험반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 학생들을 위한 실험실습실이 번듯하게 꾸려지게 되였으며 실험실습에 필요한 설비들도 그런히 갖추어졌다.

대학에서 실험실습교육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밀고나간 결과 높은 실천능력을 소유한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 지금 비료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올해에 많은 직장이 3중모범기술혁신단위, 2중모범기술혁신단위,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수여받을수 있은것은 대학의 졸업생들이 단단히 한몫하였기때문이다.

주목되는것은 실천형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 학생들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기술을 소유하게 하였을뿐아니라 전반적인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도 효과가 큰것이였다.

대학에서 강좌별로 련합기업소 직장들에 나가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 교원들은 현실에서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게 되였다. 최근 비료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학의 교원들이 적극 이바지한것만 보아도 이 대학 교육자들의 실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학에서 올해에 진행된 전국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와 도적인 교수경연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10월8일모범교수자대렬이 해마다 늘어나는것이 우연하지 않다.

대학의 일군들은 이렇게 교원들과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관철해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교육정책에 맞게 학생들의 창조능력, 실천능력을 키워줄수 있는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사색하고 창조해나갈 때 실천형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일터의 면모를 일신

개성시 룹환협동농장 제4작업반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작업반의 면모를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운 이곳 초급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널리 해설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곳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일터를 보다 훌륭히 변모시키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구슬땀을 바치였다.

하여 짧은 기간에 농업과학기술선전실과 탈곡장, 축산기지와 창고 등 모든 건물이 번듯하게 꾸려지게 되였으며 정신이 번쩍 들게 일신된 작업반의 모습은 찾아오는 사람들속에서 감탄과 놀라움을 자아내고있다.

제손으로 일터를 변모시키는 과정에 자기 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절감한 이곳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다음해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류 승 균

값높은 부름—우리 인민보안원

라선시 라진지구인민보안부 리광복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라선땅은 수도 평양으로부터 수천리 떨어져있는 곳이다.

조국땅 한끝인 이곳에도 사람들속에서 우리 인민보안원, 우리 대의원이라고 불리우는 참된 인민보안원이 있다.

라선시 라진지구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 리광복동무이다.

그는 어떤 소행을 발휘하였는가.

무엇이 평범한 인민보안원에게 그렇듯 값높은 부름을 안겨준것인가.

* *

몇해전 어느날 밤, 야산너머에서 불어오는 찬 바다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한 인민보안원이 거리를 걸고있었다. 리광복동무였다.

중키에 다부진 체격인 그는 매일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자기가 담당한 지구를 돌아본다.

그밤 그는 며칠전에 늘인 안전그물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수십개나 되는 개소들을 다 돌아보고서야 마음이 놓이는듯 발걸음을 돌리던 그는 《아차!》 하며 머리를 쳤다.

오늘이 예명이들생일이니 꼭 집에 들려가라던 배순란동무의 말이 불현듯 떠오른것이다. 배순란동무는 리광복동무가 동생처럼 여기며 각근히 돌봐주는 녀인이고 예명이는 그의 딸이였다.

리광복동무는 배순란동무가 어릴 때부터 그의 가정을 알고있었는데 배순란동무의 아버지가 영예군인인것이 인연이였다. 오랜 세월 친혈육처럼 영예군인을 돌봐주다보니 리광복동무와 배순란동무사이에도 어느덧 형제의 정이 흐르게 된것이였다.

리광복동무는 손전화기로 안해를 찾았다. 낮에 이야기한 애기옷을 준비했는가 물으니 안해는 대뜸 《두 아이를 키웠는데도 돌잡힌 아이옷을 맞춰 구하기가 힘들더군요. 꼭 맞겠는지…》라고 했다.

《좀 내려다주오. 내 아빠트밑에서 기다리겠으니.》

이렇게 말하고난 리광복동무는 천천히 아빠트현관앞을 거닐었다.

배순란동무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의 결혼식날을 일생 잊을것 같지 못하다고 입버릇처럼 외우군 했다.

그 결혼식에 리광복동무는 신랑의 들러리로 참가했었다.

어느모로 보나 나무랄데 없는 처녀가 영예군인총각과 결혼상에 나란히 앉은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와하였다. 그러며 배순란동무의 영예군인아버지가 영예군인사위를 맞았다고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조국을 지켜 피흘린 우리 사위가 나는 제일 돋보이누만.》

이렇게 말하며 환히 웃는 영예군인을 바라보는 리광복동무의 마음은 뜨거웠다. 오랜 세월 친혈육처럼 가까이 지내오지만 매번 새롭게 느끼게 되는 그의 고결한 정신이고 지향이였다.

그날 리광복동무는 신혼부부가 아버지의 속깊은 마음을 잘 알고 사회와 집단앞에 떳떳이 살기를 바라며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다. 친부모도 미처 생각지 못한 생활필수품들까지 세세히 갖추어주는 인민보안원을 두고 이웃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배순란동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리광복동무는 그들 가정을 더 극진히 돌봐주었다. …

《함께 가자요.》

슬며시 팔소매를 잡으며 하는 안해의 말에 리광복동무는 상념에서 깨여났다.

《은종일 녀명사업을 하느라 힘들겠는데 좀 쉬지 않구. …》

지경동녀명사업을 맡고있는 안해에게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심은 그도 오래간만에 안해와 밤길을 걷는것이 싫지 않았다.

《순란이 애가 벌써 돌이 되였군요.》

배순란동무의 가정일에 많이 관심하지 못한것만 같은 자책이 안해의 말에 비껴있었다.

어느덧 그들은 배순란동무의 집앞에 이르렀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자 기다렸던듯 집주인들이 달려나왔다. 엊그제 만났었는데도 오래간만에 다시 만난듯이 무척 반가와하는 그들이였다.

《우리 예명이생일에 귀한 사람들이 왔수다.》

이러며 리광복인민보안원부부의 팔을 끄당기는 녀인은 배순란동무의 어머니였다.

리광복동무가 방안에 들어서자 집사람들은 《예명아, 큰아버지가 왔다. —》 하며 어린것을 그의 곁으로 불렀다. 한동안 발더듬을 해서야 와닿은 예명이를 품에 안으며 리광복동무는 환하게 웃었다. 참으로 한가정처럼 따뜻한 정이 흐른 밤이였다.

이런 날이 그에게는 얼마나 많았던가.

리광복동무의 안해 안혜경동무는 녀명사업으로 바빴지만 늘 남편의 특별과업을 수행하느라 마음을 썼다.

언제인가 점심참에 집에 들렸던 안혜경동무는 밥상보우에 놓인 글쪽지를 펼쳐보았다.

《안화동 김정애전쟁로병할머니의 손자가 군대에 나감. 오후 4시까지 정거장에 가야 하니 준비할것. 전우로부터.》

그는 저도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무슨 일을 맡길 때면 항상 제 대군인인 당신에게 맡기오라고 하며 《전우로부터》라는 마지막말을 꼭 붙여놓군 하는 남편이였다.

그날 안혜경동무는 점심밥도 설치고 급히 집을 나서서 병사수첩이며 노래집, 시집들을 마련했다. 그리고는 그 면 앞장들에 군사복무를 잘하라는 당부가 담긴 글을 적어넣었다. 얼마후 그것들을 가지고 정거장에 나간 리광복동무는 로병할머니와 함께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그의 손자를 배웅해주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다듬었다.

(해마다 이날이면 로병의 집에 꼭 가야겠구나. 할머니가 손자생각에 저적하게 해서야 안되지.)

그가 늘 즐고다니는 자그마한 수첩에는 안화동 김정애전쟁로병의 손자가 조국보위초소로 떠난 날자가 또박또박 씌여졌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듯 그는 발걸음을 옮기였다. 사무실에 가는 길에 그가 들려야 할 곳은 안화동의 공원꾸리기현장이였다.

땡이며 단물을 비롯한 당과류들을 듬뿍히 싸들고 나타난 그를 공원꾸리기에 동원된 녀인들이 마중했다.

두손에 들린 구럭을 받을 생각도 미처 못한채 녀인들은 리광복동무의 팔소매에 매달렸다. 안화동은 리광복동무가 지구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은 곳이였다. 하여 그는 자주 이곳에 나와 절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군 하였다. 그날도 지구적인 본보기공원을 꾸린다는 동녀맹위원장의 말을 듣고 짧시간에 지원사업을 온것이였다.

《공원조감도를 보니 흐뭇합니다. 나도 뭔가 기여해야겠는데 녀맹위원장동지, 저에게도 일감을 맡겨주십시오.》

자못 정색하여 하는 리광복동무의 말에 녀맹위원장은 주춤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대의원동진 그저 이따금 나와서 총지휘나 해주십시오.》

그 말에 녀인들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늘 주민들의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은 무엇이며 아이들의 학교에서는 제기되는 문제가 없는가, 제대군관들의 새집들이준비는 잘되였는가 등 일일이 마음쓰며 진정을 다하는 리광복인민보안원이여서 주민들은 그가 동에 나올 때마다 반가와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군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리광복동무는 혼연히 말하군 했다. 나야 인민보안원이고 지구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가고.

하기에 그는 그 이튿날에도 공원의 놀이기재들에 바를 도색감을 마련해가지고 또다시 현장을 찾았다.

이런 그를 주민들이 어찌 따르지 않으랴.

며칠후 안화동녀인들은 떡이며 뜨끈한 국을 비롯한 음식들을 해가지고 리광복동무를 만나기 위해 라진지구인민보안부 교통안전교양실을 찾아갔다.

《요전번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는 내용의 선전을 하러 동에 나왔을 때 보니 퍽 측간것 같더라니까.》

《뜨끈할 때 인민보안원동지들과 함께 드십시오.》

정이 함뿍 담긴 음식들과 떼떠며 두툼한 장갑까지 안겨주는 녀인들…

순간 리광복동무는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우리 인민처럼 순박하고 마음씨고운 인민이 또 어디에 있을가. 그들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민을 위한 일을 더 많이 찾아하자.》

* *

리광복동무는 이렇게 10여년 세월 관내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극진히 돌봐주었을뿐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였다.

언제나 밝은 인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리광복동무, 돋보이는 그의 모습에서 류달리 우리의 눈길을 끄는것이 있었다.

군모에 빛나는 별이였다.

그것은 언제나 인민이 마음편히 웃고 마음편히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는 수호자의 별이였다.

지금 이 시각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며 남모르는 헌신의 길을 걷고있을 수많은 인민보안원의 군모의 별들도 바로 그렇게 빛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한평생을 되새겨보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가슴속에는 그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뜨겁게 차넘치고있다.

로씨야신문 《자브뜨라》는 《흰눈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한생을 회고할 때 먼저 떠오르는것은 흰눈이다.

그이의 한생은 흰눈과 같은 순결한 생애였다.

김정일령도자께 있어서 자신을 위한 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그이께서는 늘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폭잠으로 피로를 푸시면서도 도처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장들과 새 집들, 문화휴식터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조국앞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많은 기념비와 동상들을 세워주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시였다.

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두고온 인민들을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헌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김정일령도자의 고결한 한생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범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은 조선의 사회주의가 자기의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사회주의를 수호하신것은 진보적인류앞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중의 하나이다.

력사는 김정일각하와 같이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인을 알지 못하고있다.

그이께서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오늘 세계자주화위업은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세계자주화를 위한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신것은 그이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시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단호한 철추를 내리시였다. 그이는 인류의 사상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인이시다.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고귀한 유산으로 된다.》

알제리작가이며 기자인 알리 가르즐리는 김정일각하께서는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조선을 온 세계가 다 아는 강위력한 나라로 전변시키신 절세위인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세기의 위인이신 그이를 영원토록 잊지 않을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은 눈내리는 2월 조선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한평생 자신을 위한 것이란 하나도 없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심장을 불태우시였으며 12월의 흰눈을 맞으며 인민들과 영결하신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의 고결한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달리는 렬차나 승용차에서 밤을 새워 사업하시였으며 폭잠으로 피로를 푸시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정신육체적과로로 중병을 앓으시면서도 현지지도의 길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그이의 숭고한 영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길이 빛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칭송하듯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한없이 고결한 헌신으로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인중의 위인,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대한 나라로 전변되였으며 인류자주위업은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조국과 인류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속에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김수진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결성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11월 13일 음푸말랑가주에서 결성되였다.

전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음푸말랑가주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암브로씨 음니씨가, 부위원장으로 진보적사상연구소조 위원장 에디에 페카나가, 서기장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 가스 로우렌스 웰톤이 선출되였다.

전국위원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특출한 외교방식》

이란통신 인터네트홈페지에 특집

이란의 일나통신이 11월 2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고 《특출한 외교방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글은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특출한 외교방식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외교활동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대단히 전격적이며 파격적이라는것이다.

여러차례의 중국방문과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이라는 수뇌외교활동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여 력사적인 사변들을 련속 안아오신 위인의 박력있는 외교활동방식은 세계를 매혹시키고있다.

서방언론들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 대해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사변》, 《김정은위원장은 과격적이고 솔직하신 발언과 대담하고 거침없는 행동, 림기응변과 유모아감각 등 예상을 뛰여넘는 탁월한 외교술로 불과 하루동안에 수뇌회담을 세기적인 회담으로 성공시키시였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외교활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대단히 포괄적이라는것이다.

위인의 외교활동은 전세계적범위를 포괄하고있다.

지난 3월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그 일행을 접견하신데 이어 두달후인 5월말 쎄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련방외무상을 접견하신것을 비롯하여 그이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외교활동령역의 범위를 다각적으로 확대해나가고계신다.

《외교무대의 보록을 넘히시는 김정은위원장》, 《본격적인 대외활동》, 《전략적으로 능숙한 지도자》…

이것이 위인의 외교활동에 대한 외신들의 평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기존의 외교관례와 형식을 초월하시여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위업을 주도해나가신다.

【조선중앙통신】

제 처지도 모르는 주제넘는 망동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대렬에 들어서려는 야욕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최근 유엔주재 일본대표는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이 지체되고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토의속도를 가속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집권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되면 자기 책임을 다할것이라는 소리를 념불처럼 외워대군 하였다. 그런것을 념두에 두면 그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을 운운하는것은 앉을 자리, 설자리도 모르는자들의 주제넘는 짓이다.

지금 일부 특정국가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독단과 전횡을 부리며 기구를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유엔무대에서 주요국제정치문제들이 옳게 해결되자면 독자적인 주견과 공정성을 가진 발전도상나라들이 상임리사국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일본은 그런 자리에 들어앉을 초보적인 자격도 못 가진 나라이다. 국제무대에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일본은 언제 한번 독자적인 주견을 세워본적이 없었다. 큰 나라의 손락에 제일 잘 놀아나는 나라가 일본이다. 아무런 주대도 없는 이런 나라가 상임리사국자리에 올라앉는 경우 유엔이 공정성을 더욱더 잃게 될것이다.

더우기 일본은 과거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침략국가, 전범국이다. 특대형반인륜범죄들을 저지른 과거사를 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있다. 오히려 일본반동들은 자기 나라가 유미럽강들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해방전쟁》을 벌렸다고 우겨대고있다. 다른 나라들에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것이 아니라 《번영, 발전》을 가져다주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있다. 그러면서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내세우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세계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야스구니신쟈참배놀음을 정례화하고있다.

과거죄악을 일본처럼 지독하게 부정, 외곡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일본은 평화가 아니라 해외침략을 꿈꾸는 나라이다.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법적발판을 마련해놓은 일본반동들은 무력증강을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자위대》를 공격형으로 완전히 개편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그 타격력과 작전능력을 높이는데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은 《평화국가》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진 극히 위험한 침략세력, 전쟁세력으로 되였다. 국민들에 대한 군국주의사상고취,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화대, 《평화헌법》개악책동에 광분하면서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해보려는것은 그를 악용하여 해외팽창, 재침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전범국의 오명도 벗지 못한 정치난쟁이인 일본이 국제기구의 책임직인 자리에 올라서겠다고 하는것은 인류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일본은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제 할바나 착실히 하여야 한다.

과거청산은 일본이 안고있는 력사적책임이며 반드시 해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이다.

일본은 제 처지를 바로 알고 과거죄행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철저한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 한다.

리현도

민심의 심판에 도전해나선 정치간상배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인 홍준표가 해괴한짓을 벌려놓았다. 민중이 자기 말이 《옳았다고 한다.》는니,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수작을 늘어놓으며 정계복귀를 선언한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홍준표는 지난 6월에 있은 지방자치제선거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것은 사실상 반역정치의 대명사인 역도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였다. 그런데 이에 도전하여 홍준표가 고양이 거름종지 노리듯 또다시 정치판에 머리를 들이밀려 하고있는것이다. 역도의 이 뻔뻔스러운 추태는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홍준표로 말하면 력사와 민족앞에 저지른 엄청난 죄악과 추악한 행실로 하여 천하의 패륜패덕한, 인간쓰레기로 락인찍힌 자이다.

역도는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심에 물젖어 온 민족이 한결같이 바라는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반대해나섬으로써 보기 드문 대결광신자로 악명을 떨쳤다. 평화와 담을 쌓은 이자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들과 그에 대한 남조선각계의 지지활동을 《위장평화공세》, 《좌파들의 반동》으로 마구 헐뜯으면서 보수패당의 맨앞장에서 날뛰였다. 역도가 북남관계, 조미관계개선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그 무슨 《요청사항》이라는것을 조아박은 《공개서한》을 미국에 보내며 대화와 평화의 흐름을 가로막으려고 발광한것은 극악한 대결광으로서의 이자의 더러운 정체를 잘 보여주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가 홍준표의 대결망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을사오적》도 무색케 할 천하의 매국역적이라고 지탄했겠는가.

원래 홍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자이다.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권력의 동아줄을 좇아 아첨과 배신을 밥먹듯 하는 놀라운 변신술로 하여 《홍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을 얻어가졌다. 먹을알이 있을 때에는 찰거머리마냥 바싹 달라붙고 거치장스러우면 도마뱀 제꼬리 자르듯 대정스럽게 차버리는 홍준표의 기질도 널리 알려진것이다.

역도는 사리사욕을 채우는데도 이골이 났다. 《국회》의원후보추천권을 가지고 흥간질하면서 수만US$의 뇌물을 받아먹은 사실, 《국회》특수활동비를 야금야금 제 집으로 빼돌려 횡령한 사실 등 홍준표가 저지른 부정부패행위는 수두룩하다. 홍준표가 대학시절에 자기 친구에게 녀성을 강간하도록 도와준 사실이 공개된것은 이자의 불망나니기질과 도덕적저렬성을 그대로 폭로해주었다.

홍준표역도는 대상을 가림없이 온갖 악담질을 일삼고 수준이하의 상스러운 말과 비도덕적인 망언을 서슴지 않는 불망종이다. 특등정치간상배, 도적왕초, 천하의 호색광, 《홍끼호떼》 등 별의별 추악한 오명을 다 달고다니는 이런자의 정계복귀는 곧 동족대결에 미친 히스테리, 인간오작품, 《막말제조기》의 귀환에 불과할뿐이다.

홍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한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정계개편을 주도하면서 자파세력을 타시 규합하여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자는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홍준표의 정계복귀에 대해 《수구보수패멸의 좋은 기회》라고 아유조소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정의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괄치거리 홍준표의 《정계복귀를 격하게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가 수구보수의 우두머리가 되여 민중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홍준표의 정계복귀선언으로 《자유한국당》내부도 벌둥지 쑤셔놓은것처럼 소란해졌다. 《자유한국당》내의 친박계는 도처에서 비난받는 홍준표를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하면서 역도의 정계복귀를 강하게 반대하고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비롯한 반역당의 상층인물들은 홍준표의 정계복귀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예로부터 족제비도 낮짝이 있어 숨을 구멍을 가린다고 하였다.

수치도 망신도 모르고 기신기신 정치무대에 기어나와 민심의 심판에 도전하는 홍준표의 어리석은 추태는 남조선 각계의 조롱과 비난만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심철영

로씨야 신형요격미싸일을 시험발사

로씨야가 까자흐스딴의 싸리-샤간사격장에서 최근 신형요격미싸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미싸일은 예정된 지표들에 완전히 도달하였으며 제시된 가상적인 목표를 정확히 소멸하였다고 한다.

1일 로씨야국방성 공보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2일 자국의 탄도미싸일시험과 관련한 미국의 비난을 배격하였다.

미국이 이란의 중거리탄도미싸일시험을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위반으로 몰아붙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터무니없는것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유엔안보리사회의 그 어떤 결의도 이란의 미싸일계획이나 미싸일시험들을 금지하지 않고있다고 밝히면서 이란의 미싸일계획은 방어적성격을 띠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란 미국의 비난을 배격

같은 날 국방 및 무력병참상은 자기 나라가 미싸일과 레이다, 장갑차, 무인기들을 제작하는데서 세계의 최강국들중 하나이라고 하면서 이란은 오만무례한 렬강들의 지난 40년간의 가혹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에서 자급자족하는 나라로 되였다고 언명하였다.

뛰르끼예 미국의 계획을 비난

뛰르끼예국방상이 최근 수리아북부지역에 감시초소들을 세우려는 미국의 계획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의 그러한 움직임이 복잡한 이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알제리외무상 반테로투쟁에서 협력할것을 호소

알제리외무상 아브둘까디르 무싸힐이 11월 27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반테로투쟁에서 협력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테로분자들이 국경횡단범죄자들과 결탁하여 마약과 무기를 밀매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거두어들이고있으며 그것으로 새 악당들을 모집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나라들사이의 국제적협조를 강화하여 테로조직들이 자금확보를 할수 없게 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가정폭력행위

유엔약물범죄사무소가 최근 세계녀성폭행금지의 날에 즈음하여 가정폭력행위의 심각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 각지에서 살해된 녀성들의 수는 약 8만 7 000명이며 그중 58%가 가정내에서 폭행을 당하여 죽었다.

이것은 매일 평균 130여명의 녀성이 남편이나 가족들에 의해 살해된것으로 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

얼마전 남조선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에 있는 일본총령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강제징용로동자들에게 배상할것을 요구한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에 일본당국이 계속 엇드레질하고 자민당패거리들이 《결의문》이라는것까지 채택한것을 단죄하면서 일본총령사관앞에 강제징용로동자상을 다시 건립하고 일본의 사과를 받드시 받아내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성신녀자대학교의 한 교수는 조선인강제징용사실을 끈질기게 부정하는 일본이 그 무슨 《산업혁명의 유산》에 대해 운운하며 일제시기 조선사람들이 강제징용되여 일하던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한것을 규탄하면서 그것을 당장 철회할것을 국제기구에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급격히 악화되는 로씨야-우크라이나관계

지난 11월 25일 흑해와 아조브해를 련결하는 께르치해협에서 우크라이나해군함선들이 로씨야에 나포되였다. 사건과 관련하여 로씨야련방안전국 사회련계쎈터가 밝힌데 의하면 3척의 우크라이나해군함선이 로씨야령해를 침범하였으며 즉시 멈춰설데 대한 로씨야련방안전국 국경경비국과 흑해함대의 합선 및 함정들의 합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행동으로 저항하였다. 우크라이나군함들을 강제로 멈춰세우기 위해 무기가 사용되였으며 그 과정에 우크라이나군인 여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 께르치해협은 로씨야가 크림반도를 통합한 후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단속검열을 강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여온 수역이다.

로씨야련방안전국 사회련계쎈터는 3척의 우크라이나해군함선이 자국령해의 흑해수역에서 5시간동안이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목적은 이곳에서 분쟁상황을 조성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련방안전국 국경경비국은 우크라이나가 제정된 질서에 따른 신청문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나라의 함선들이 위험하게 행동하면서 로씨야의 합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로씨야련방의 함선들이 자국함선들에 비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이 유엔헌장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규범들과 쌍무적인 조약법적기초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사건은 최근년간 급속히 악화되여온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사이의 관계와 그를 둘러싼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속도이다.

로씨야의 크림통합을 계기로 로씨야와 우크라이나는 첨예하게 대립되였으며 서방은 로씨야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문제를 둘러싼 충돌과 마찰이 계속되여왔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군함나포사건이 발생한것이다.

로씨야는 이번 사건을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야합하여 자국에 대한 비난과 제재의 구실을 찾기 위해 조작한 의도적인 도발로 보고있다.

로씨야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도발행위는 이 지역에서 새로운 긴장격화의 근원을 만들어내고 대로씨야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할 목적으로 장소와 형식을 면밀히 선택한것이라는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진해지대 의하면 군함나포과정에 체포된 우크라이나군인원이 재판에 회부되게 된다.

우크라이나군함나포로 가뜩이나 악화된 두 나라 관계가 극도로 평평해지고있다.

우크라이나무력 련합부대 및 군부대들이 총참모장의 명령에 따라 완전전투준비태세에 진입하였다.

우크라이나국방성 공보부는 《법적인 전시상태를 실시할데 대한 우크라이나국가안전 및 방위리사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우크라이나무력 총참모장 겸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무력 련합부대 및 군부대들이 완전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갈것을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외신보도들에 의하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함께 로씨야와의 국경지역부근에 미군사기지를 설치하기 위한 비밀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로씨야는 크림반도에 《C-400》대공미싸일종합체계를 추가배비하여 올해 년말중에 가동시키려 하고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서방나라들에서는 로씨야의 《도발》설이 떠돌고있다.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공약하였다.

여론들은 우크라이나군함나포사건이 로씨야-우크라이나관계는 물론 로씨야-서방관계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리철혁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에이즈피해방지를 위해 노력

에이즈가 여전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이즈비루스가 발견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그에 의한 세계적인 사망자수가 3 500만명이상에 달하였으며 지난해에도 94만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에이즈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아프리카로서 세계적인 감염자수의 3분의 2인 2 570만명이 이 대륙에 있다고 한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사람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아가는것으로 하여 죽음의 병으로 불리우는 에이즈는 특정한 대륙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나라에 퍼져 사회경제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이로부터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가 에이즈전파방지에 힘을 넣고있다.

모잠비끄는 2020년까지 에이즈환자발생률을 종전의 주민 1 000명당 3.6명으로부터 2.4명으로, 나미비아는 에이즈비루스감염률을 2%이하로 낮출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르완다에서는 임신부들이 미리 치료를 받아 비루스가 애기에게 이전되는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2030년에는 에이즈비루스의 전파를 완전히 막으려고 하고있다.

케니아에서도 2019년까지 감염률을 75%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란자니아에서는 에이즈전파를 막기 위한 6개월간의 전국적인 검진 및 치료사업을 벌리고있다.

스리랑카정부는 해안지역에 있는 관광호텔들에서 병의 위험성에 대한 위생선전을 진행하며 콜롬보시교외와 여러 지역에 10개의 에이즈전문의료시설을 새로 설치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캄보자정부는 에이즈 및 결핵전파방지계획을 세우고 국제기구와의 협조밑에 2020년까지 악성전염병의 전파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한편 에이즈치료에 도움을 주는 줄기세포이식기술, 에이즈비루스의 유전자를 파괴하는 기술과 에이즈비루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약물합성기술 등 에이즈치료기술들이 광범히 개발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반범죄투쟁

이란국경경비대가 1일 시스탄 발루치스탄주에서 마약소량작전을 벌려 1 950kg의 아편을 압수하였다.

한편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경찰은 이날 반자루까시에서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적발몰수된 2 400여정의 각종 무기들을 파괴하였다.

* *

파키스탄경찰이 11월 28일 마르단지역에서 마약밀매 등 각종 범죄를 일삼던 25명의 악당을 체포하고 무기와 탄약, 마약 등을 압수하였다.

이에 앞서 25일 아프가니스탄의 파크티아주에서 72t이상의 하쉬쉬가 적발소각되고 5명의 범죄자가 억류되였다.

최근 체스꼬세판당국은 수도 쁘라하에 있는 비행장에서 6.4kg의 코카인을 숨겨가지고 입국하던 밀수업자를 구류하였다.

* *

나이제리아경찰이 11월 30일 잠파라주에서 여러날동안 벌어진 범죄소탕작전과정에 104명의 무장범죄자를 소멸하고 50여개의 은신처를 파괴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아부자에 있는 국제비행장에서는 자금세척행위를 일삼던 범죄자가 체포되고 많은 현금이 몰수되였다.

이에 앞서 29일 란자니아경찰은 다르 에스 살람에서 범죄자들의 은신처에 대한 공격작전을 단행하여 6명의 악당을 소탕하고 무기와 탄약을 압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소식

새로운 《습건그루바꿈》재배방식

최근 어느 한 나라의 대학교수가 농업기술보급소와 협력하여 처음으로 농작물의 《습건그루바꿈》재배방식을 내놓았다.

《습건그루바꿈》이란 습한것을 좋아하는 작물과 건조한것을 좋아하는 남새를 서로 엇바꾸어 재배하는것을 말한다.

이 방식은 온실남새재배의 지속적이고 안정한 발전을 실현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교수가 소개한데 의하면 일반남새밭들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같은그루심기를 하고있기때문에 토양이 산성 및 염성을 띠고 영양균형이 파괴되며 병충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루바꿈을 하면 우와 같은 현상들을 없애거나 상황을 개선할수 있다.

《습건그루바꿈》재배방식은 전통적인 온실에서의 같은그루심기보다 우점이 매우 뚜렷하다. 즉 토양의 염성을 억제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남새의 같은그루심기에서 나서던 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한다.

실례로 건조한것을 좋아하는 남새를 8년동안 재배해오고있는 온실의 남새밭에서 습한것을 좋아하는 작물로 한번 그루바꿈을 해주자 토양의 염성정도가 완화되였다고 한다.

교수는 오이떠일병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 매해 오이를 재배한 온실에서 이 병의 발생률이 《습건그루바꿈》재배방식을 도입한 온실보다 50.7% 높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이 재배방식을 리용하면 건조한것을 좋아하는 남새에 피해를 주는 병원균, 해충, 벌레알들을 거의 모두 죽일수 있으며 병충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것으로 하여 농약사용량을 대폭 줄이게 된다.

새 재배방법은 토양의 영양성분을 효과적으로 늘이는데도 도움을 준다. 시험결과 《습건그루바꿈》을 한 온실토양의 린, 칼리움함량이 일반남새온실의 토양보다 27.7% 높다는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작물을 재배할 때 비료를 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현재 시험기지에서는 남새를 일반온실에서보다 1~2개월 일찍 수확하고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등 수익을 훨씬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ㄱ-181192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번호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